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8호 【루계 제24541호】 주체103(2014)년 5월 8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특류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룬 청년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특류영예군인들과 가정을 이룬 청년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혁명적도덕의리로, 숭고한 본분으로 간주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조국보위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한생의 길동무가 되여주는 아름다운 소행이 계속 발휘되고있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새 세대 청년들인 문덕군 인흥협동농장 3대혁명소조원 최정심, 혜산외국어학원 교원 김현심, 국가과학원 과학자병원 의사 최은화, 함경남도무역관리국 산하공장 로동자 서윤경은 특류영예군인들을 정성껏 돌봐주는 과정에 그들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하고 한가정을 이루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길은숙, 혜산방직공장 로동자 리행복, 혜산시 모정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김향옥, 단천시 백산협동농장 농장원 천금주는 군사복무의 나날을 값높이 빛내인 특류영예군인들을 위해 청춘도 사랑도 다 바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태천군 운룡리 5인민반 최꽃현, 개천시 전진동 82인민반 정윤미, 향산군 읍 104인민반 강명실, 옹진군 읍 21인민반 리성희, 안악군 월정리 1인민반 정춘심, 배천군 금산리 1인민반 석진옥도 뜨거운 인간애와 동지적사랑을 지니고 특류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특류영예군인들의 안해들은 남편들을 잘 도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함으로써 당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정은시대가 안아온 조선의 위대한 전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격찬의 목소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거창한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천만군민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몽골주체연구쎈터대표단 단장 느. 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

이것은 조선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일떠설것이라는것을 그대로 립증해준다.

이 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조선인민처럼 기쁘게 생각하며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김정은원수각하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은 창창하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뻬스는 방문기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체류기간 목격한 모든것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겠다.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옐레나 바비치는 훌륭한 창조물들과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들이 빠르게 진척되는것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앞으로도 더욱 몰라보게 변모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은 위대한 기적의 나라이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된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5월 중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져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변혁이 이룩되고 사회주의문명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이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우리 당사상사업에서는 1970년대와 같은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할 주체예술의 사명과 역할은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인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시기 위해 전국예술인대회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이 맥박치는 투쟁과 변혁의 시기에 열리게 될 전국예술인대회는 주체예술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우리의 예술을 선군혁명위업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력사적리정표로 된다.

한편의 영화나 한건의 글이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은 지금 항일유격대나팔수들처럼 사상전의 우렁찬 진군가를 온 나라에 울려가는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참신한 예술활동에서 뚜렷이 증시되고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예술창조활동에서 변혁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경험과 교훈을 찾으며 선군혁명문학예술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창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문학예술부문과 련관단위의 창작가, 예술인들, 일군들이 참가하게 된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김일성화에

중국 산동성 청도세계원예박람회 금상 수여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중국 산동성 청도세계원예박람회 금상이 수여되였다.

4월 25일에 개막된 박람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37개 나라와 중국각지의 수많은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전시회장은 만발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들의 신비함에 매혹되여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참관자들로 련일 성황을 이루고있다.

시상식이 6일 박람회 조직위원회 인사들과 여러 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시상식에서는 김일성화에 수여된 금상과 상장이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 단장에게 전달되였다.

박람회 국제화초경쟁조직위원회 집행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화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다.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를 비롯한 여러 박람회들에서 최고상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금상을 수여받은것은 김일성주석의 존함을 모신 이 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명화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부강하고 문명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7일에 진행되였다.

박문호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당위원회 비서 오춘영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리용근, 견방종합직장 초급당비서 리준호, 직포종합직장 직포공 김옥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로동계급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10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공장에 로동자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건설부지도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공장로동자합숙에 나오시여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선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합숙생들의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게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 많은 천을 생산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의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합숙생들은 웅장하게 일떠선 공장로동자합숙의 첫 주인이라는 남다른 자각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방직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합숙의 관리운영과 합숙생들의 생활보장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은정이 로동자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공장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초기지로 내세워주시고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의 암치료기술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우리 식의 치료방법으로 지난 10여년간 수술후 암이 재발될수 있거나 전이될 위험성이 있는 수백명의 사람들과 암이 전이되기 시작한 수십명의 사람들의 생존기일을 훨씬 늘임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암성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성질병인 암은 의학계에서 의연히 불치의 병으로 인정되고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암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암은 조기에 적발하면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치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앞선 치료방법에 의해 고칠수 있다. 하지만 암의 진행기나 말기에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들이 퍼진 상태에 있으므로 외과적치료로 해당 부위의 암을 없애거나 그 크기를 아무리 축소한다고 해도 전이 또는 재발을 막을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암환자들의 대부분이 암의 전이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암의 전이를 막는데서 효과적인 여러가지 면역치료방법들을 림상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치료방법은 수술하여 떼여낸 암조직에서 암원성을 없애고 면역원성을 높인 다음 면역보조물질들을 거기에 첨가하여 만든 암왁찐에 의한 치료방법이다.

언제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암재발, 전이예방약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해주도록 하여주시였다.

실장 리일훈동무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당시의 조건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암재발, 전이예방약의 질적수준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림상실천에 받아들여 3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그후 연구성과를 더욱 확대하였다.

지난 10여년동안 수술을 받은 수백명의 암환자들에게 암왁찐을 접종한데 의하면 간암환자들의 5년생존률이 제일 높았다. 오래동안의 치료과정을 통해 이들은 간암, 폐암,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암왁찐치료를 배합할 때 5년생존률이 종전의 다른 치료방법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유선암, 직장암, 대장암, 콩팥암, 담낭암 등에 걸린 암환자들의 경우에도 같은 치료방법을 적용한 결과 그들의 생존기일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이 개발한 암왁찐은 항암제주사를 맞은 후에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머리칼빠지기, 심장계통과 소화기계통 및 비뇨기계통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나 없으면서도 치료효능이 좋아 여러 나라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들이 만든 암왁찐은 몇해전에 진행된 유럽의 어느 한 국제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콩팥암치료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본 외국의 한 인사는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해당기관에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갈 높은 목표를 세운 이곳 연구사들은 의학과학원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계속 힘찬 전투를 벌려 최근년간에는 수술후 전이되기 시작한 암환자치료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미 개발한 암왁찐과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는 항암제들을 배합한 우리 식의 새로운 암치료방법을 림상실천에 받아들인 후 간암, 폐암, 위암 등이 전이된 환자들의 생존기일이 훨씬 늘어났다. 암이 전이되여 몇달 혹은 한해밖에 살지 못할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수십명의 사람들이 세계적높이에 확고히 올라선 우리 식의 암치료방법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락랑구역에서 사는 한 로동자는 몇해전에 위암수술을 받은 후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되였던 자기의 병이 이제는 나아졌다고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격정에 젖어 말하였다.

형제산구역에서 사는 한 녀성도 암이 전이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던 자기가 다른 나라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값비싼 치료를 무상으로 받으며 꿈과 같이 건강을 회복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종양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지금 암환자치료에서 짧은 기간에 세계를 확고히 디디고 올라설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니고 지난 시기 이룩해온 성과를 더욱 확대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투쟁 활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데 따라 전국각지의 50여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곳 건설장에 보낼 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기계공업성, 채취기계공업지도국, 전자공업성 등 여러 성, 중앙기관아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발전설비, 전동기, 뽐프, 배전반, 분전함을 비롯한 각종 설비들과 협동품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 1.4분기와 4월에 이어 5월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터마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세찬 열풍이 일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발전설비생산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당면하여 희천3호발전소의 대규모수력발전설비생산을 하루빨리 다그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하고있다. 주강직장, 발전설비제관직장, 대상설비제관직장의 로동자들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수백t의 주강소재들을 부어내고 작업날개실전량과 10여개의 회리실고정날개, 7개의 기계틀을 제관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아래 대안전기공장, 룡강전동기공장, 룡강절연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변압기와 전류변성기, 절연물생산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겨울철에 대담하게 생산을 진행하여 1.4분기에만도 1만 4천개의 현수애자를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평양326전선공장, 성천강전기공장,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평양전동기공장, 문천발브공장, 함흥발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각종 전선류와 전동기, 분전함, 발브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채취기계공업지도국아래 안주뽐프공장, 장산전기공장, 동림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대상설비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안주뽐프공장에서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긴장한 전투를 벌려 1단계뽐프 전량을 생산보장하였으며 장산전기공장, 동림전기공장에서도 가까운 기간에 대상설비생산과제를 결속할 드높은 각오를 안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전자공업성아래 여러 단위들에서도 청천강에 전력증산의 동음이 울려퍼질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대상설비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히 평양자동화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배전반을 비롯한 하나하나의 제품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의 기술자들도 계단식발전소운영의 현대화를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걸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화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천t에 달하는 계단식발전소들의 수문제작과제를 자진하여 맡아안고 일터마다에서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전투장마다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발전소건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특히 올해에 어랑천2호발전소를 조업하고 어랑천5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건설지휘부에서는 발전소건설이 립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주타격방향을 옳게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들이대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이들은 작업현장들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짜고들면서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고있다.

어랑군대대의 전투원들이 어랑천5호발전소건설의 중심고리인 잠관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대대의 전투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결사관철의 의지로 수십m구간의 굴착작업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낸데 이어 콩크리트타입을 다그치면서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도청년돌격대려단의 여러 중대의 전투원들은 어랑천2호발전소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데 맞게 발전소를 선군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구조물들과 설비관리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릴 뜨거운 열의는 어랑천3호, 4호발전소 도로건설을 맡은 도청년돌격대려단 돌격대원들의 심장속에서도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면서 도로건설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혁신의 불바람은 팔향언제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와 청진시 송평구역, 명간군, 명천군중대의 전투원들은 자기들이 맡은 언제건설을 기한전에 끝낼 드높은 열의를 안고 혼합물운반과 타입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어랑천2호발전소 종업원들을 위한 공공건물과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와 도수산관리국중대를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여러 대대, 중대의 전투원들은 전력생산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줄 열의를 안고 학교와 종합편의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건설지휘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어랑천발전소건설은 빠른 속도로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우리에게는 위대한 단결의 무기가 있다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은 요즘 찾아오는 사람들로 더욱 붐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신 로정을 삼가 경건한 마음을 안고 밟아보기도 하고 원수님께서 앉으시였던 의자를 정히 쓸어보기도 하면서 어디가 아픈가, 치료를 잘 받으라고 환자들과 뜨겁게 인사를 나누시던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해빛과도 같은 미소를 눈물겹게 그려보는 사람들…

두 병원의 보건일군들은 물론 환자들도 더없는 격정에 젖어있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병원을 일떠세운것은 세계적수준의 병원이 있다는것을 소개선전하자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그날의 우리 원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행복에 울고웃으며 우리 원수님을 모시였던 행운의 자리입니다. 꼭 단란한 한가정의 행복한 모습이였습니다. …

너무도 감격하여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날의 당사자들, 격정없이는 새길수 없는 사연을 전해듣는 사람들모두의 눈에서도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러내린다. 지금 온 나라에 그날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고있어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어제는 저 멀리 섬초소들과 평범한 가정들에서, 오늘은 로동당시대의 복을 한껏 받아안는 희한한 병원들에서 펼쳐진 혼연일체의 화폭, 바로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 조국에서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다.

격동의 선군시대는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화원이 더 란만히 꽃펴나는 영광의 시대이다.

* *

강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가장 위대한 재보이며 후손만대에 물려줄 무진막강한 국력인 일심단결,

우리 혁명사는 곧 위대한 단결의 행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자기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존엄의 전성기에 살고있는것은 명실공히 걸출한 령도자를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 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못해낼 일이 없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고 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붉은기에 승리만을 아로새겨나가시는 불세출의 정치가, 일심단결의 위대한 중심이시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다!

바로 이것이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인 조선로동당의 어제와 오늘, 래일의 위대한 모습을 긍지높이 담고있는 일심단결을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재보로 중시하시며 단결의 전통을 련면히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철학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진군가를 높이 울려가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정치철학인 일심단결의 정당성에 대한 일대 과시이다.

보통때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단결의 심도를 가늠할수 없다. 최악의 경우를 당해보아야 그 나라의 진정한 단결의 위력에 대하여 정확히 잴수 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단결의 공고성, 불패성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어떻게 신뢰하고 받드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또 어떤 사상의지로 뭉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은 만민이 칭송하는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의 거장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열화의 단결이며 령도자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단결이다.

우리의 일심단결, 그것은 삶의 1분1초를 자기 당의 사상으로 숨쉬며 자기의 령도자를 신념으로 따르고 의리로 받드는 숭고한 단결이며 그 신념과 의리로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적단결이다.

사상적인 단합에 의리적인 단합이 결합되여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비길데 없는 공고성, 불패성이 있는것 아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우리 천만군민이 걸어온 길,

그 길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면서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온 길, 오랜 세월 품어오던 리상을 꽃피워온 긍지높은 승리의 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헤쳐온 시련의 그 나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민족의 대국상, 력사의 반동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

그처럼 가슴터지는 시련의 나날 우리의 가슴속에 파연 무엇이 억척같이 뿌리내렸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군대가 앞장서고 인민이 뒤따르며 조국땅우에 후손만대의 번영의 설계도를 마음껏 펼치는 격동의 나날에 더 굳건히 다져진것은 파연 무엇이였던가.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사상과 백승의 전략으로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온 나라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굳게 결합시켜주는 천만군민의 크나큰 심장으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개척해나가는 끝없는 행복과 희망의 상징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언제나 인민들과 병사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에 대한 열화같은 매혹이였다. 격동의 그 나날 얼마나 감동깊은 일심단결의 혁명실록이 숭엄히 엮어졌던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령도의 길은 혁명의 수뇌부와 자주적근위병들사이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고 단결의 기둥을 더 억세게 세워준 류례없는 행로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열병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을 잊지 않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울린, 온 세계를 격동시킨 경륜이였다.

첫 신년사에서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혁명의 려명기에 온몸이 누리에 붙는 불이 되여 단결의 중심을 결사옹위한 열혈투사들의 가슴을 끓여주던 피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지 않았던가.

단 한번 안겨보아도 한생을 영광의 그 순간에 살게 하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인민을 열화같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해 아글타글 헌신하시는데서 더없는 삶의 희열을 느끼시는 위대한 태양의 품,

그 품을 떠나서 억만재부도 달갑지 않고 순간도 살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하는 위대한 동지의 품,

만민의 심장을 매혹으로 끓어번지게 하는 극적인 순간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는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쓴다.

그런 어머니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당의 품에 안아주고 장군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무슨 사업을 하나 조직하거나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그것이 일심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것을 따져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대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리 일군들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지금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장에 뜨겁게 굽이치던 격랑을 잊지 않고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량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량심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랑을 주고 정으로 보살펴주며 이끌어줄 때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역경속에서도 불사신들로 키울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일심단결의 철학이다.

만민의 가슴에 따사로운 해빛이 흘러들게 하고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뜻과 정에 매혹되여, 그 위대한 품을 결사옹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선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이다.

자주적근위병의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번영의 탑을 쌓아온 경이적인 나날에 더욱 굳건히 다져진 우리 조국에서의 위대한 일심단결,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위대성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매혹과 절대적인 신뢰심으로부터 출발한 순결한 사상감정이며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오로지 원수님만 믿고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드놀지 않는 사상감정의 분출이였다.

창밖에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뿌려지는 날이면 전선길에 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충심으로 바라고 원수님께서 제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밤이 깊으면 쉬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여 잠 못 이루는 인민, 뜻밖의 큰물로 가장집물을 다 잃었어도 살아갈 걱정에 앞서 원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

일심단결, 그 위대한 력사가 엮어지던 나날을 더듬는 우리의 가슴에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그 한사람한사람의 모습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바다물속, 그것도 살을 에이는듯 한 물속에 뛰여들어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누가 물속에 뛰여들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다.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분위기가 무겁게 배회하는 때 위험천만한 최전연들을 련일 찾으시며 사랑하는 전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비록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항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로 달리고 그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 비상한 각오로 더운 피를 펄펄 끓여온 최고사령관동지의 충직한 전사들, 인민만이 펼칠수 있는 격동적인 화폭이였다.

과연 어느 나라의 력사에 이런 눈물겨운 화폭이 새겨진적 있었던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나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그들과 꼭같은 화폭을 펼칠 사람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이 충정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일편단심이다. 바로 이것이 적들이 그 어떤 잡소리로도 흔들어놓을수 없는, 돈으로도 유혹할수 없고 핵몽둥이로도 깨뜨릴수 없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일심단결이다.

일심단결, 이 위대한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담보가 있으며 우리 혁명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초석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강대성과 불패성의 상징인 일심단결을 위하여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집단의 화목과 단합에 적극 이바지하는 시대정신의 체현자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것도,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민심을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것도 그이께서 지니신 이런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반영인것이다.

이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는 정치계를 진동하고 있다.

적들이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며 최첨단군사력으로 위세를 올리던 때는 영영 지나갔다.

우리에게는 적들이 볼수도 없고 잴수는 더욱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한 무기가 있다.

이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를 당할자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량 순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은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에 기초하고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필승의 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갈때 백전백승한다는 확신과 수령을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고결한 충정에 기초할 때만이 가장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은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혁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와 결심을 가질 때 수령을 끝까지 믿고 따를수 있으며 수령을 옹호하기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수 있다.

오중흡동지는 혁명가는 어떤 신념을 지니고 수령을 어떻게 옹호보위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였다. 오중흡동지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선혁명이고 조국이라는것을 확신하였기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수령님께 의탁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다. 오중흡동지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할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혁명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된다는 신념이 확고하였기때문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으나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굳게 간직되여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옹위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나가고있으며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드는 천만군민이 있는 한 선군혁명의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은 혁명의 수령을 끝까지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이다.

수령을 끝까지 따른다는것은 부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굽히지 않는 참대처럼 평온한 나날에나 시련의 시기에나 언제나 자기 수령만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수령을 끝까지 따르려는 의지를 지닐 때만이 그 어떤 동요와 변색을 모르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다.

수령을 따르는 마음이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영원히 변함이 없을 때 혁명가의 삶도 끝없이 빛나게 된다. 항일의 백전로장으로 불리우던 최현동지의 한생은 말그대로 일편단심의 한생이였다. 그는 인생의 로년기에도 항일의 불바다,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을 헤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빛나게 살았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었다.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에는 김혁, 차광수, 김책, 오진우, 연형묵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당이 자랑하고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혁명가들이 수없이 많다. 혁명가의 한생은 이렇게 시작도 끝도 한모습이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을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고 행복한 래일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윤 철 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되새겨보고있는 농업근로자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기념보고회가 7일 강계시에서 진행되였다.

도내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김춘섭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3(1964)년 4월 23일부터 5월초까지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 희천정밀기계공장, 강계연필공장 등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고 강계시건설총계획도와 도안의 예술인들과 학생소년들이 출연한 예술공연과 집단체조를 보아주시며 자강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계청년발전소에 나오시여 조업을 선포해주시고 5.1절국가행사를 강계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여러 부문 협의회들에서 전력, 기계제작, 채취공업, 림업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산과 강을 잘 리용하여 도를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나날 몸소 친위전사가 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시는 한편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결사관철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자강도가 전국의 앞장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는 도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50년간 도의 전반사업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룩되고 경제토대가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필승의 신심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견인불발의 투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락관을 지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든 고장이라고 불러주신 자강땅에서 살며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계정신을 발휘하여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우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였으며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일신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날 뒤떨어진 고장이였던 자강도가 CNC화의 고향으로,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자랑도로 천지개벽하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자강땅에 남기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를 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과 남새, 누에고치생산에서 전진을 이룩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공사기일을 앞당기며 중소형발전소건설을 계속 밀고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받들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지난 4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2돐을 맞으며 인민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아안은 군인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예술소품공연무대를 펼치고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넘치는 노래들을 목메여 불렀다.

인민대표단성원들은 군인들로부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굽을 적시였다.

참으로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에 수놓아진 사랑과 은정의 이야기 얼마나 많고많은가.

섬초소들에 가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륙지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맛있고 향기로운 과일도 안겨주시고 더 많은 물고기를 사철 떨구지 않고 먹을수 있도록 극동설비들도 갖추어주게 하시였으며 태양열을 리용하여 문화생활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해주신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지도우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표시되여있는 섬초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천도개벽한 이야기도 들을수 있다.

한 구분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분대에 찾아오시여 군인들이 준비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부르시며 병사들의 가슴속에 조국보위의 사명감을 더 깊이 심어주신 이야기도 깃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는 녀성해안포병들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최고사령관과 지휘관들을 믿고 자기의 귀한 자식들을 맡겼는데 우리는 병사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온갖 사랑과 정을 부어주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조국의 해안을 지켜선 녀성군인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은정은 녀성해안포중대 군인들이 바다바람에 얼굴이 텄다고 걱정하시며 약크림을 보내주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육친의 사랑그대로였다.

《이 약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녀성해안포중대장이 바다바람에 얼굴이 텄다는것을 아시고 의사에게 당장 고약과 약크림을 보내주라고 말씀이 계시여 보내는것입니다. …》라고 쓴 글쪽지와 함께 약크림을 받아안고 감나무중대 군인들이 격정을 터치였던 그때처럼 녀성군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지금도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온 나라 인민은 사랑의 약크림에 깃든 사연을 전한 혁명일화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혁명일화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해안포중대 군무생활에서 바다바람에 얼굴쯤 트는것은 응당 있을수 있는 일이며 크게 문제가 될것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친어버이이신 장군님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한 전사의 손가락상처를 두고도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생각은 아무리 해안포군무생활을 한다 해도 처녀의 얼굴이 바다바람에 터서는 안된다는 사랑의 높은 경지에 가닿고있는것이다.

…

혁명일화가 전하고있는것처럼 생명과 관련되는 비상구급약도 아니고 순전히 얼굴에 바르는 고약과 약크림을 가지고 군대의 장령이 중대에로 달려간 례가 어느 나라, 어느 군대에 있었던가.

정녕 그런 사실은 세상에서 오로지 내 나라, 내 조국의 군대에서만이 있을수 있는 일인것이다.

사랑의 약크림에 대한 감격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진 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19년,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 녀성해안포병들에게 거듭거듭 베풀어주신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얼마이던가.

그런 이야기 오늘도 천리방선에 끊임없이 수놓아지고있으니 건군절을 맞으며 조국의 해안을 지켜선 녀성군인들이 받아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그대로인 육친의 사랑, 아무리 해안포군무생활을 한다 해도 녀성군인들의 얼굴이 바다바람에 터서는 안된다는 그런 한없이 높은 경지의 숭고한 사랑인것이다.

감나무중대를 찾으신 날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갔는가고 물어주시고 그들이 웃단위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참가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중대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시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의 심정을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자신께서는 동부전선의 군인들을 믿으며 동부전선의 한개 초소를 지키고있는 녀성혁명가들인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면서 감이 익는 계절에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뜨겁게 하신 그날의 말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대의 군인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오랜 시간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뵈오면서 온 나라 인민들은 또 얼마나 눈시울을 적시였던가.

중대를 떠나있는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마음에 걸리시여 꼭 다시 찾아와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산천초목도 목메여하였으리라.

조국방선의 바다가초소에 깃든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인민군대가 어떤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하기에 우리의 병사들은 노래하는것이다.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뜨겁게 노래하는것이다.

…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본사기자 박 철

조국방선초소에 넘치는 은정

조선속도창조투쟁으로 우리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간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

결사관철로 높뛰는 심장은 기적창조의 원천

김경윤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조선의 결심을 실천으로 증명하며 여기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기적창조의 하루하루를 수놓아가는 시공단위들의 앞장에는 조선인민내무군 김경윤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당당히 서있다.

—3월말까지 12만 7 000여㎥의 성토과제 수행, 공사구역내 하부망공사 결속, 살림집 및 공공건물기초공사 결속,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지상골조공사에 진입.

—5월 5일현재 3만㎥이상의 콩크리트치기 진행, 총골조 콩크리트량의 95%계선 돌파, 두동의 7층살림집과 5호동 봉사건물의 골조공사를 완공하고 벽체미장공사 30%계선에서 추진, 14호동살림집과 초급중학교골조공사 마지막단계에 진입.

불과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장지휘부적인 공사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기며 이곳 부대의 장병들이 이룩한 기적적인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부대도 이 보람찬 전투장으로 불러주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부대의 지휘관들은 즉시에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당시 부대가 맡고있는 중요대상건설만도 수십개나 되였다. 그런 조건에서 새로 받은 위성과학자거리건설 시공과제를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수행한다는것은 보통의 잡도리로써는 불가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곧 우리 부대에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입니다. 부대적인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위성과학자거리의 시공과제를 넉달동안에 결속합시다.

연건축면적이 근 3만㎡에 달하는 세동의 살림집과 초급중학교, 5호동 봉사건물건설과제를 단 넉달동안에 수행하자는 부대책임일군의 불같은 호소에 전체 지휘관들이 호응해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충만된 그들은 즉시에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적문제들을 대책해나갔다.

공사경험이 풍부한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는 문제, 하부구조공사와 동시에 건물기초공사에 진입하는 문제, 시공에서 기계화, 공업화비중을 높이는 문제, 부대적인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중요건설자재들을 앞질러 보장하는 문제…

전투승리의 지름길은 이렇게 시작전에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달려온 산하부대들의 군인건설자들은 단 며칠동안에 공사장적으로 제일 훌륭하게 가설건물들을 일떠세웠다.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만만한 투지에 넘쳐 그들은 착공식이 있은지 불과 4일만에는 건물기초굴착을 끝내고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콩크리트타입에 진입하였다.

부대가 본격적인 콩크리트타입에 들어가면서 부대의 지휘관들이 특별히 관심하고 힘을 넣은 문제가 있었다. 혼합물생산과 그 운반문제였다.

부대에서는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부대아래 혼합물공장에서 혼합물전량을 생산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책임일군들이 여러차례 공장에 내려가 설비상태를 알아보고 세멘트와 모래, 혼석을 렬차와 배로 집중수송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매일 전투총화때마다 공장의 혼합물생산량을 따져가며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기동적인 조직사업도 안받침하였다.

그런가 하면 산하부대들의 지휘관들이 직접 화물자동차들에 동승하여 왕복 백수십리길을 하루에도 20여차례나 달리고 또 달리는 운전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공사장 곳곳에 만든 혼합물적재장바닥이 미처 드러날새없이 혼합물을 실은 자동차들이 들어섰다. 살림집과 공공건물대상의 10여곳에 전개된 기중기차들이 혼합물이 도착하는 즉시에 타입전투장으로 나르고 또 날랐다.

그야말로 전격전, 립체전의 불바람이 부대가 맡은 모든 건설대상마다에서 세차게 휘몰아쳤다.

현장지휘부의 지휘관들은 앙양된 군인대중의 정신력이 그대로 드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지도록 공정검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시공조직을 짜고들었다. 부대적인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산하부대들의 시공일군들에게 보여주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철근가공 및 조립방법, 대형휘틀조립방법, 혼합물진동다짐방법, 계단단번시공방법, 내부 및 외부벽체미장방법 등 현장지휘부 일군들이 매 공정별로 하나하나 품들여 준비하여 진행한 보여주기사업은 반복시공을 근절하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비상한 각오안고 높이 세운 전투목표와 그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지휘관들의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작전과 지휘는 그대로 높은 공사실적으로 이어졌다. 부대에서는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살림집골조공사완공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였다.

벌써 두동의 살림집은 외벽미장이 끝나고 내부완성미장 및 간벽축조, 배수관늘이기, 지붕공사단계에 들어갔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발휘되고있는 이곳 부대지휘관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은 혁명의 지휘성원들부터 가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이 투철할 때 선군조선의 전진속도를 과시하는 그 어떤 기적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결승의 직선주로따라 돌진하며

36일만에 울려퍼진 개가

뜻깊은 태양절을 하루앞둔 지난 4월 14일 오후 김영남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10호동 3현관 7층만장우에 승리의 붉은 기발을 꽂았다.

이 소식은 부대들사이에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김주섭소속부대가 그 뒤를 이어 결승선에 들어섰고 2~3일간격으로 맡은 현관골조공사를 끝내는 부대들이 련이어 배출되였다. 결과 뜻깊은 건군절을 앞두고 9호동, 10호동살림집은 공사장적으로 제일먼저 골조공사완공의 첫 테프를 끊게 되였다.

지상골조콩크리트치기를 시작하여 불과 36일만에 이룩된 성과였다.

이 기간 9호동, 10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김경윤소속부대의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처음에는 5~6일 걸리던 한개 층의 골조를 보름이 지나서부터는 3.5일만에 일떠세우며 연 1만㎥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예상을 뒤집어엎은 경쟁순위

17호동과 18호동, 어느 호동의 살림집골조공사가 먼저 끝날것인가.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당시에는 누구나 18호동이 먼저 끝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4월초까지만 하여도 18호동의 골조공사실적은 17호동에 비해 2개 층이나 앞서있었다.

당시 18호동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자기들보다 뒤떨어진 《옆집》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면서 높은 공사속도를 은근히 자부하고있었다. 이럴 때 공사장에 새로 달려나온 엄범규소속구분대가 맡은 17호동 1현관 살림집골조가 시간을 다투며 쑥쑥 솟구쳐올랐다. 이들의 뒤를 따라 같은 호동의 다른 현관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도 점차 공사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한시간이 새롭고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17호동살림집골조를 보며 18호동의 군인건설자들이 바싹 긴장하여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되였다.

17호동살림집골조공사가 18호동보다 이틀이나 먼저 끝났던것이였다.

새로 생긴 운동장에서의 체육경기

4월중으로 종합공원성토공사과제를 전부 결속하자!

이것은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내세운 4월전투목표들중의 하나였다. 성토량만해도 18만여㎥,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수십대의 중기계들이 동원되였다. 자체로 닦은 수송도로를 따라 40여대의 화물자동차들이 왕복 6㎞의 거리를 밤낮이 따로 없이 오고갔다. 20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최고 1만여㎥의 성토공사실적이 기록되였고 공사장주변에 있던 두개의 큰 산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지난 4월 30일 종합공원성토공사완공의 승전고가 울리였다. 다음날 아침 성토공사가 마무리된 종합공원의 넓은 부지에서는 부대군인건설자들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5.1절경축 체육경기가 시작되였다.

승리의 기발이 꽂혀진 운동장에서는 배구, 바줄당기기 등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이 련이어 진행되였고 뒤이어 흐뭇한 시상식이 있었다.

본사기자

불가능이란 없다, 공격 또 공격

◎ 진광철소속부대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불과 보름 남짓한 나날이 흘렀다. 우리가 또다시 찾은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가 맡은 공사장에서는 그전날의 모습을 찾아볼수가 없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외벽미장공사에 들어간 17호동과 18호동의 다층살림집들, 축구경기장을 련상케 하는 드넓은 종합공원부지, 마지막층골조공사단계에 들어간 소학교건설장…

우리는 곳곳마다에서 이곳 부대군인건설자들이 수놓아온 기적창조의 자욱자욱을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공사기간에 비하여 부대앞에 나선 전투과업은 방대하였다.

두개 호동의 덩지큰 다층살림집들, 소학교의 교사와 체육관그리고 배구장, 롱구장, 로라스케트장, 바드민톤장을 비롯한 갖가지 대중체육시설물까지 훌륭히 갖춘 종합공원…

— 힘있는 부대, 일 잘하는 부대의 존엄과 영예를 이곳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다시한번 남김없이 과시하자!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심장은 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뜨겁게 고동쳤다. 공사장 곳곳마다에서 부대군인들의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살림집골조공사를 위한 격전의 하루하루가 흐르던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장용철소속구분대 군인건설자들앞에는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날마다 높아가는 그들의 공사속도에 층막휘틀조립에 필요한 버팀목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였던것이였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부대에서 필요한 자재를 보장해줄때까지 앉아있을수는 없다.

지휘관도 군인들도 이런 하나의 지향안고 방도를 찾아나갔다. 오늘의 공격전에서 순간의 답보도 있을수 없다는 자각안고 서로의 지혜를 합치고 또 합쳐나갔다. 이 과정에 그들은 버팀목을 쓰지 않으면서도 층막휘틀을 원만히 조립할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창안하였다. 종전보다 철근조립시간도 줄일수 있는 방도도 함께 찾아내였다. 너도나도 떨쳐나 긴장한 층막휘틀조립전투를 벌려나갔고 그 기세로 타입전투에 련속 진입하였다. 결국 이곳 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골조공사를 빠른 속도로 중단없이 내밀어 부대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소학교건설을 맡은 남광우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전격전, 립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단숨에의 정신으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와닥닥 끝내고 기본골조공사에 달라붙은 첫 시기 공사실적이 시원치 못했다. 원인은 층막부재생산장의 면적이 제한되여있는데 있었다. 전투승리의 열쇠는 벽체조립속도에 따르는 층막부재생산이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쳤다.

골조공사와 동시에 부재생산장의 면적을 늘이기 위한 성토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단 하루사이에 소학교건설장마당이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부대지휘관들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짧은 기간에 수십t의 벼겨도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낮에는 물론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벼겨를 부재우에 덮고 태워 층막부재의 양생기일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갔다. 부재생산량은 단번에 3배이상으로 뛰여올랐고 소학교골조공사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였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이 높이 울리는 이곳 부대의 건설장에서 우리는 군인들이 우리 《시공참모》라고 정담아 부르는 한 방송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부대 방송선전차의 방송원인 윤경희동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가하였던 끝없는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공사장에 남먼저 달려나온 그였다.

군인대중의 심금을 쾅쾅 울리는 방송선전의 여가시간에 그는 더 바삐 뛰였다.

혼합물을 실은 자동차들이 건설장에 도착하면 즉시 달려가 부려야 할 위치도 정해주었다. 자료를 취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뛰여다닐 때에도 그는 시공과정에 나타난 사소한 부족점도 알려주어 군인건설자들의 마음을 울려주었다.

어찌 이들만이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는 사소한 빈구석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점 하나, 선 하나에도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기울인 측량원들, 휘틀조립전투의 여가시간이면 철근가공도 하면서 두몫, 세몫의 일감을 해제낀 병사들, 육중한 철근통구리를 다루며 하루 평균 100여대의 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혁신을 창조한 차명혁소속구분대의 녀성분대원들을 비롯하여 오직 결사관철만을 아는 군인들의 앙양된 정신력에 떠받들려 건물들이 나날이 솟구치고있는것이다.

새로운 시대속도, 조선속도창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릴 불타는 일념안고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공격 또 공격해나가는 이곳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공사장의 면모는 나날이 달라지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위훈을 불러오는 사상전의 포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의 일터마다에서 사상전의 드세찬 포성이 높이 울리고있다.

부대별, 단위별승벽심을 불러일으키며 방법론있게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과 일터마다를 들었다놓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에 공사장이 부글부글 끓고 시간마다, 날마다 놀라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쟁열풍을 배가한 직관선동

전투장마다에서 련이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속에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에서는 종전의 직관물들만 가지고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위훈담을 다 담을수 없었다.

부대정치일군들앞에는 긴급전투과제가 하달되였다. 정치일군들이 직접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공사장 한켠에서 더 많은 직관물들을 제작하기 위한 이채로운 전투를 벌렸다. 불과 며칠사이에 새로운 전투속보판들이 건설장 곳곳에 추가배치되였다.

특히 누구나 그 어디서나 다 볼수 있게 살림집골조벽체의 중간에 설치한 너비 2m, 높이 3.5m에 달하는 많은 속보판들과 경쟁도표판, 표어들은 부대별, 구분대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배가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였다.

골조공사완공의 테프를 먼저 끊기 위해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 내달리는 속에 4월 하순에 이르러 한개 층의 골조공사기일이 5일로부터 3일로 줄어들게 되였고 결국 부대가 맡은 두개 호동 살림집들의 기본골조공사는 계획했던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4월 28일까지 끝나게 되였다.

심금을 틀어잡는 경제선동의 포화

조선인민내무군 김경윤소속부대의 일터마다에서 고조되는 전투분위기는 힘있는 경제선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본격적인 미장공사에 들어간 9호동, 10호동살림집은 물론 마지막골조공사로 들끓는 14호동살림집과 초급중학교건설장 어디서나 산하부대 군악소대원들의 힘찬 경제선동의 포성이 울려퍼지고있다.

힘있는 군악과 함께 노래와 선동, 시랑송 등을 배합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행하는 군악소대 군인들의 화선선전, 화선선동은 기적과 위훈창조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군인건설자들의 열의를 백배해주고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는 현장에서 만난 부대정치일군인 김정훈동무는 사상전의 포문을 열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령적말씀의 정당성을 이곳 공사장에서 실천으로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군악소대들사이의 경쟁, 직관선동경연, 소묘경연, 주마다 진행되는 혁신자사진촬영과 군인가족기동예술선동대활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상사업의 위력이 있어 부대는 오늘도 별동대, 힘있는 부대의 영예를 자랑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영예의 혁신자들

배명관소속부대 군관 엄범규동무

조정남소속부대 사관 리충아동무

차광호소속부대 사관 김국명동무

리관복소속부대 병사 리혜영동무

김주섭소속부대 병사 김정호동무

수차효률을 높여 더 많은 전기를

금진강6호청년발전소에서

금진강6호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발전설비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잘하여 전력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금진강6호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발전소이다. 정평군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선 금진강6호청년발전소 관리운영을 잘하여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인민들이 전기덕을 더 잘 보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넘이언제보강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발전소언제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와 군인민위원회의 방조밑에 금진강6호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소관리운영을 잘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그들은 물관리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여 전력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발전설비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이들은 새로운 수차연마지구를 창안도입하여 수차효률을 높이고 타빈금속메달을 고무메달로 개조하여 그 수명을 늘이였다.

언제와 물길, 타빈과 배전반을 담당한 로동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깐진 일솜씨를 발휘하여 전력생산에 한몫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보수정비를 앞질러가며 미리 하여 예비기대를 조성해놓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책임기사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남다른 탐구심과 불타는 정열을 안고 발전설비보수정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박동석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될데 대한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와 도과학기술위원회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3대혁명전위의 본분을 다해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파견단위의 당조직들이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목표수립과 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주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및 경험발표회를 해마다 두차례이상 실속있게 조직하여 소조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할 드높은 열정안고 현실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기술혁신과제들을 맡아 본때있게 해제꼈다.

순천, 덕천, 북창, 득장, 개천지구의 탄광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들끓는 막장들에 내려가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지않게 풀었다.

2.8직동청년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묶음동발에 의한 무잔주결굴채탄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원가를 줄이면서도 석탄채취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전자식 150t화차저울, 주설비전력측정감시체계, 벨트콘베아원격감시 및 조종체계 등을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포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음파대전식물분사기구를 창안하여 여러 갱들에 도입함으로써 발파후 먼지와 가스제거시간을 줄이고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 기술혁신안은 석탄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탄광에서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명학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차에 발제동장치를 새롭게 창안도입함으로써 전차운행에서 높은 속도와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설비를 보호하여 더 많은 석탄을 실어나를수 있게 하였다.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에 새긴 이들은 전기식버럭적재기창안 등 여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여 석탄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천성청년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수평결굴에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받아들여 석탄운반능력을 높이였으며 수자표시소자에 의한 재정총화공시판을 만들어 로동자들의 생산의욕과 경쟁열의를 높여주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려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풀었다. 전학민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타빈급수뽐프날개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저열탄연소첨가제를 받아들여 보이라연소효률을 높이는 등 여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전력생산에 이바지하였다.

반수성가스생산공정의 분산형통합조종체계를 개발도입하는데 기여하여 4년전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으로 생산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소조책임자 심태일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미끄럼베아링의 국산화실현, 가스발생공정의 중요계기인 유면계의 국산화실현 등 여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여 원가를 줄이면서도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소조책임자 로명진동무를 비롯한 회창군 신흥광산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분산형통합조종체계를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귀중한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으며 수평대차를 만들어 사갱들에 받아들임으로써 광석운반능력을 2배이상 높이고 일을 헐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고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도움을 주는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풀었다.

숙천군 운정농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소형족답탈곡기를 만들어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증산군 풍정, 만풍협동농장의 소조원들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간석지벼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덕천시 평화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농장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알곡과 축산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성공시켰다.

최례철, 정성철동무를 비롯한 한천수산사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통안강망을 새롭게 창안제작하여 쇠바줄을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잡이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특히 리과대학 생명과학부의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실내초고밀도인공배양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스레기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바스레기씨조개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인공먹이배양기술을 완성함으로써 바스레기의 생산원가를 줄일수 있게 되였다.

도정보통신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체신의 현대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소조책임자 허영철동무는 통신케블절단경보체계를 완성하여 통신의 신속성, 정확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소조원들은 선부호인식기재에 의한 전화료금계산관리체계를 완성하여 료금접수시간을 대폭 줄일수 있게 하였다.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이룩한 이 모든 과학기술성과들은 지난 3월에 진행된 제4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심장에 새긴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담력과 배짱을 안고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로동당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은 울고있었다. 그리고 웃고있었다.

너무도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목메여, 너무도 벅찬 감격과 기쁨에 겨워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의 주인들모두가 울고웃으며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따사로운 태양의 품을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그렇게 흘러간 5일낮, 5일밤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태여난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정다운 보금자리인 로동자합숙에 이사짐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지금껏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생들은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어떻게 날이 새고 저무는지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저 꿈만 같이 여겨질뿐이였다.

그처럼 보는것, 듣는것모두가 희한하고 황홀하였다.

녀성방직공들을 위한 세상에 둘도 없는 합숙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솟구쳐오르는 합숙건물을 바라보며 래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부풀 때에도 그들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바로 그러했기에 로동자합숙준공식에 이어 행복의 새 보금자리로 입사하던 날 그들모두는 격정과 환희에 앞서 놀라움과 경탄속에 합숙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층고가 알맞게 설정된 홀과 복도며 녀성들의 취미에 어울리게 부드럽고 안온한 색갈로 단장된 벽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고 편리하게 꾸려진 수백개의 호실들…

그뿐이 아니였다.

현대적인 최신식설비들이 갖추어진 주방과 연회장처럼 꾸려진 식사실, 들어서기만 하여도 하루일의 피로가 순간에 사라져버릴것만 같은 목욕탕과 미용실, 녀성로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온갖 상품들이 가득찬 상점 그리고 치료실과 도서실…

합숙의 외부는 또 얼마나 훌륭한가.

합숙생들이 휴식과 오락,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게 꾸려진 공원은 말그대로 동화속의 무릉도원이 아니였던가.

정녕 잠들수가 없었다. 오늘의 이 행복, 이 감격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끝없이 노래하고 싶었다.

대동강물결우에 저녁노을이 곱게 비낄무렵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창가마다에서 불빛이 하나둘 비치기 시작하였다. 그 불빛은 한밤이 깊어가는 속에서도, 동녘하늘에 먼동이 터올 때까지도 꺼질줄 몰랐다.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감격의 소식, 환희의 소식이 끊임없이 날아갔다. 분계연선도시로부터 조국땅 북변 한끝에 이르기까지 부모형제들과 모교의 스승들, 동무들에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에 대하여, 평범한 방직공인 자기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눈물속에, 웃음속에 전하고 또 전하였다.

전화를 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목멘 소리로 합숙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연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뜨겁게 외우며 격정을 터치였다.

이렇게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의 한밤은 지샐줄 몰랐다. 대동강반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물오리떼의 깃치는 소리와 더불어 감격과 기쁨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가 수도의 새벽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졌다.

지난해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공장에 로동자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겠다고 하시며 건설부지까지 친히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이 동원되여 합숙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합숙생들모두의 마음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자료를 매일 보고받으시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모두 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완공된 공장합숙을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합숙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리고 또 달리였다.

참으로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사랑의 보금자리였고 그리움과 보답의 맹세가 없이는 보낼수 없는 낮과 밤이였다.

하기에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전기난방화된 침실들과 녀성로동자들을 어서빨리 멋쟁이로 내세우고싶은듯 활짝 문을 열어놓은 정갈한 미용실, 각종 도서와 상품들이 가득찬 도서실과 상점, 맑은 물 출렁이는 목욕탕과 매끼 푸짐한 식탁이 기다리는 식당을 비롯하여 합숙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이런 심장속웨침이 뜨겁게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로동계급의 이 세상, 인민의 나라를 천만년 빛내이리라!

하루를 백날, 천날로 주름잡아 더 많은 천을 짜고 또 짜서 끝없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길이길이 전해가리라!

절절한 그리움, 불타는 맹세를 안고 오늘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창가마다에서는 행복과 기쁨의 노래소리, 희열과 랑만의 웃음소리가 내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글 본사기자 리남호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모든것이 황홀한 최신식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말그대로 궁전이고 호텔이다.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탄성이 연방 터져오른다.

정녕 로동자합숙은 합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로동자들의 본보기합숙, 세상에 자랑할만 한 건축물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떠선 합숙의 그 어디가나 로동자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가득차있다.

처녀들이 좋아하는 연분홍색과 미색이 조화를 이룬 복도에 서부터 사람들은 황홀감을 금치 못한다. 복도의 곳곳에 놓인 쏘파들과 거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처녀들의 모습은 마치도 합숙생이 아니라 호텔에 든 손님을 련상케 한다. 매 층의 홀들마다에 대형액정TV와 화면반주음악기재가 있어 로동의 기쁨이 노래로 울려퍼진다.

합숙의 모든 호실문들이 품위있고 멋이 있다. 정갈하게 꾸려진 따스한 합숙방에서 처녀들의 옷차림은 이미 여름철에 가있다.

호실마다에 놓여있는 전화기로 처녀들은 때없이 고향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최고급의 목욕탕과 식당, 도서실, 치료실, 유희오락장도 모두 합숙안에 있어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있다.

창광원도 부럽잖게 꾸려진 미용실이며 새로 들어온 화장품을 고르는 합숙생들의 웃음소리가 명랑하게 들려오는 상점…

창문밖의 배구장에서는 응원소리 높아도 칸막이유리로 둘러막힌 전자도서실안은 고요하다.

누가 복도에서 잔기침만 해도 위생복을 입은 의사가 달려나와 치료실로 이끌고 들어간다.

참으로 이곳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는 로동자들의 궁전이며 호텔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이처럼 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주는 최상급의 건축물이 일떠설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하루낮, 하루밤에 꽃펴난 이야기

천여리길을 달려온 사연

지난 3일은 평범한 날이였다. 그러나 그날은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의 주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인민사랑의 전설이 끊임없이 태여나는 내 조국의 력사에 있어서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였다.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공장합숙생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 살림을 편 그날 합숙에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어디서 어떻게 모여왔는지 모를 사람들이 새 합숙의 안팎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것이다. 자기 딸자식과 제자, 자기 동무의 새 보금자리를 제눈으로 직접 보고싶어 달려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이 떠나온 곳은 거의 모두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였다. 그들중에는 조국의 북변 두메산골에서 달려온 한 녀성도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딸애가 살게 될 합숙을 텔레비죤에서 보는 순간 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로동자들을 위한 그런 합숙이 있다는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천여리길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다시금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것을.》

관리원들의 《고민》

누구보다 안타까운것은 합숙의 관리원들이였다.

준공식과 더불어 합숙생들의 새집들이가 끝난 때로부터 시간이 퍼그나 지났건만 새 집의 주인들을 도무지 달랠수가 없었던것이다. 어디가나 감격과 흥분으로 진정할줄 몰랐고 누구나 쉬이 잠들려 하지 않았다.

자정도 넘어 새벽이 되여오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목메여 흐느껴울며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는 처녀들에게 그들은 말하였다.

이렇게 훌륭한 사랑의 궁전에서 만시름을 잊고 푹 쉬여야 우리 원수님께서 기뻐하실게 아닌가고,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원수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어서빨리 자리에 누워야 한다고…

그러면 처녀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이야기했다.

《잠들수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오고 이런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살게 된것이 너무도 꿈같아 눈물만 자꾸 솟구칩니다. 우린 열백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리원들은 슬며시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다. 저도모르게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훔치며.

지킬수 없는 약속

누구나 편지를 썼다. 새집들이자랑에 대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열의와 맹세에 대하여…

그런데 그중에는 류다른 편지들도 많았다. 그것은 고향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였는데 편지의 주인은 모두 휴가를 받은 혁신자들이였다.

직포종합직장 3직포직장의 한 직포공처녀는 자기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저의 마음을 리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휴가를 바쳐 더 많은 천을 짜고싶은것이 저의 절절한 심정입니다.

그러니 저를 기다리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는 방직공영웅이 되여 부모님들앞에 떳떳이 나서겠습니다.…》

정다운 부모형제와 고향마을을 그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찌 간절하지 않으랴. 그러나 처녀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진 행복과 영광이 너무도 크고 가슴벅차 이렇듯 행복의 보금자리와 더불어 더욱 활짝 꽃필 처녀의 꿈과 리상을 안고 류다른 편지를 밤새워 쓰고 또 썼다.

얼마후 그 편지들은 고향에 가닿을것이다. 그 어느 부모인들 이 세상 만복을 다 독차지한 딸자식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랴.

본사기자

어버이 그 사랑 고향에 전하며

처녀들이 편지를 쓴다.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도 꿈만 같고 가슴벅차 고향의 부모들에게 한시바삐 전하고싶은것이 합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로동자들의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 희한한 새 집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어버이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다 전할가싶어 자기들이 쓴 편지를 서로마다 읽어보는 처녀들, 그리고는 펜을 든채 또다시 생각에 잠긴다.

친부모도 주지 못한 정과 사랑을 거듭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어찌 그 한장의 편지에 다 담으랴.

방직공처녀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식당에 들어오시여 국맛까지 보아주시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끌끌한 제대군인총각들을 보내주시고 은정어린 결혼상까지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여 오늘은 이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합숙을 통채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더 높은 천생산성과로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일념이 처녀들의 가슴속에 차넘친다.

글 및 사진 승철진

비약하는 시대의 준마처녀로

보답의 큰걸음을 내짚으며

두해전 창전거리 새 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고 사랑의 축배잔까지 받아안던 방직공영웅을 보며 우리모두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은 공장의 모든 합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세상에 없는 로동자궁전, 로동자호텔에 새집들이를 했으니 정말이지 원수님은 우리 방직공처녀들의 친어버이이시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인민들에게 질좋은 옷감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깃든 새 보금자리에서 우리의 출발도 새로와야 하며 보답의 걸음도 커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준마를 타고 계속 달려나가겠다.

방적종합직장 정방공 리윤미

고향은 멀리 있어도

우리 자매는 선군시대 청년영웅이 될 포부를 안고 멀리 북방에서 이 공장으로 탄원해왔다.

한직장에서 같은 기대를 다루는 우리는 년간계획도 꼭같이 수행했으며 5.1절경축 로동자연회에도 함께 참가하였다.

새집들이한 첫날밤 우리는 그저 감격에 겨워 울기만 했다.

떠나온 고향은 멀리에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새 합숙에 이사한 날부터 비약하는 시대의 준마처녀가 되려는 우리 자매간의 경쟁열은 더욱 뜨거워졌다. 앞으로 더 많은 천을 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

방적준비직장 조방공 우숙영, 우미영

친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일하는 로동자합숙의 식당은 연회장같고 주방의 설비들은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다.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설비들을 쓸고 또 쓸어보며 우리 취사원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세간나는 딸자식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이렇듯 훌륭한 식당을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에 목이 메여 아무 말도 못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로동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합숙생들의 친부모가 되자.

밥 한그릇에도, 반찬 한가지에도 따스한 정을 부어 방직공들이 더 많은 천을 짜도록 고무해주자는것이 우리 합숙취사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합숙식당 취사원 김옥화

병사들과 방직공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일치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지난 5일이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여기저기에서 기쁨에 넘친 환성이 터져나왔다.

《합숙아래로 지금 군인동지들이 지나가요. 우리 합숙을 건설해준 바로 그 군인동지들이!》

《아니 글쎄 그들이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대요.》

합숙복도와 호실창문들이 일시에 활짝 열리였다. 방직공처녀들은 저저마다 손을 흔들며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웨쳤다.

《축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과 행복에 넘쳐 발걸음도 씩씩하게 행진해가던 군인건설자들이 처녀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보내였다.

얼마나 미더운 모습들인가. 얼마나 장한 우리의 병사들인가.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눈비내리는 건설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지개벽의 희한한 현실을 펼쳐놓은 인민군병사들!

건설의 나날 합숙생들을 비롯한 공장로동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이란 어떤것인가를 실지체험으로 느끼면서 바로 이런 군대, 이런 병사들이 있어 내 조국이 굳건하고 인민의 행복이 영원하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병사들은 오늘의 감격과 기쁨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이 맡겨준 새 초소로 또다시 떠날것이다. 이제 그들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위훈이 창조되는 곳마다에 얼마나 많은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지게 될것인가.

인민의 기쁨이 더 활짝 꽃펴날 래일을 안고 병사들이 밝게 웃는다. 우리 군대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안고 처녀들이 병사들을 손저어 바래운다.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화폭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본사기자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해부함

최근 남조선에서는 해괴하기 그지없는 그 무슨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유령처럼 나돌고있다.

박근혜는 말끝마다 《통일대박》을 운운하면서 《통일대비》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니 뭐니 하고 부산을 피우는가 하면 주변나라들과 멀리 유럽에 가서까지 《통일대박》을 광고하고있다.

박근혜의 치마바람에 휘둘려 그밑의 괴뢰시정배들과 괴뢰어용언론들도 입을 모아 《통일대박》을 외워대며 그 무슨 연구니 뭐니 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민심과 내외여론은 리명박패당이 한때 《통일항아리》라는것을 들고나와 사람들을 웃기더니 이번에는 웬 《통일대박》인가 하면서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

통일에 대해 아무런 일가견도 없고 문외한인 박근혜인즉 리명박처럼 무엇을 하나 내들어야 하겠는데 《통일항아리》라고 하기는 멋적고 하여 《통일대박》이라는것을 궁리해낸 모양이다.

박근혜와 그 어용나팔수들이 《통일대박》에 대해 광고하는것을 보면 똑똑한 론리나 내용도 없고 그저 통일이 리득을 가져다주므로 통일준비를 다그쳐야 한다는식의 허망하기 그지없는것으로 되여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의 주먹구구식손익계산법을 보면 너무도 유치하고 황당무계하여 입이 쓰거울 정도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상식이하의 극히 저속하고 천박한것이여서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괴뢰패당이 그것을 간판으로 내걸고 통일을 바라는 민심과 내외여론을 심히 우롱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반통일적, 반민족적정체를 해부하여 만천하에 고발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무엇보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엄중히 외곡, 변질시키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모독하는 극악한 반통일론이다.

원래 《대박》이란 말은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건달뱅이들과 사기군들, 장사치들이 투전판에서 써온 《횡재》, 《행운》을 뜻하는 속어로서 우리 말사전에는 애당초 없고 남조선사전에는 흥행에 성공하여 큰 수입을 얻는 일이라고 되여있다.

박근혜가 이 유치하기 그지없는 《대박》이라는 쓰레기같은 낱말을 통일이라는 신성한 이름에 갖다붙인것 자체가 우매하다고 할지, 아둔하다고 할지 하여튼 기가막힌 일이다.

더구나 그 해괴한 용어에는 돈으로 모든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된다는 황금만능의 저렬하고도 추악한 속물적근성이 진하게 배여있다.

괴뢰패당은 그런 속된 론리로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망상에 대한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여기서 최우선적이면서 중핵적인 문제는 민족분렬의 원흉이고 조국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나라가 통일되면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은 공동의 무궁번영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를 위해 수많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에도 우리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실천적의의가 큰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의 성의와 아량을 보이였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그에 등을 돌려대면서 분렬과 대결책동에 광분하였으며 그로 하여 내외의 비난이 높아가자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온것이다.

박근혜패당이 《통일대박론》을 내든것은 그 무슨 《통일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통일세》를 긁어모으고 《통일항아리》에 모금을 하는 광대놀음을 벌리다가 돈을 걷어들이는 통일은 필요없다는 《통일무용론》이 대두되여 고립배척당한 리명박패당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도 하다.

물론 《통일대박》이란 말은 지능계수가 2MB인 리명박보다도 못한 박근혜가 제 머리로 생각해낸것이 아니라 어느 한 친미괴뢰보수학자가 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에서 도용한것이다.

박근혜와 심복졸개들은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의 략자와 같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신통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거유세에서 즐겨 써먹었으며 《정권》을 쥐게 되자 《통일대박》을 대북정책의 간판으로 내들게 되였다.

그것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표현이였으면 외신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몰라 이구동성으로 물음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노다지》, 《행운》이라는 뜻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하는 추태까지 부렸겠는가.

나라가 분렬되여 반세기도 훨씬 지나 근 70년이 되여오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프고 창피한 일인데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을 부정하고 그것을 한갖 장사치들의 흥정물로, 투전판의 도박놀음으로 묘사한것은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박근혜가 우리 민족의 숙원인 성스러운 조국통일문제를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비하하고 중상모독한것은 그가 얼마나 추악한 반역아, 패륜아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흉악한 반통일대결론이다.

박근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려벌이면서 《체제통일》망상을 드러내놓았다.

얼마전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제창하였으며 그에 대해 상전과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크게 떠들었다.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보아도 우리를 변화시켜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며 이른바 《드레즈덴구상》이라는것 역시 먹고 먹히우는 《도이췰란드식통일》을 모델로 하여 《체제통일》을 하겠다는것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이처럼 《미국식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과 《도이췰란드식통일》을 전제로 한 불순한 《체제통일》망상을 《대박》이라는 보자기로 감싼것이다.

《체제통일》은 곧 《체제대결》을 의미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것은 동족끼리 전면대결하자는것이며 결국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것이다.

우리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련방제통일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련방제통일밖에 없다.

우리가 체제통일을 마음먹었다면 이미 실현한지도 오랬으며 그럴 기회도 여러번 있었다.

오랜 기간 청와대안방에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온 박근혜가 그것을 알기나 하고 《체제통일》을 입에 올리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가 그 무슨 《급변사태론》과 《붕괴론》의 개꿈에 들떠 《통일대박론》을 내들고있는것은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

박근혜는 《통일대박》을 떠들면서 《북이 어떻게 될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을 념두에 두고 대비하자는것》이라고 줴쳤다.

그의 오른팔격인 괴뢰정보원 원장 남재준놈은 한수 더 떠서 《2015년에는 대한민국체제로 통일되여있을것》이라는 나발까지 불어댔다.

그것은 신통히 《통일은 도적처럼 온다.》고 하면서 《급변사태》개꿈에 사로잡혀 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온갖 오명을 다 쓰고 물러난 리명박역도를 방불케 한다.

《북급변사태론》과 《북붕괴론》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부질없이 떠들어대다가 우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까지 되는 바람에 풍지박산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것이다.

오늘 붕괴와 《급변사태》에 직면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총체적붕괴위기에 처해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배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침몰》로 규탄하면서 《정권퇴진》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이 되고 림종의 운명에 처해있는 박근혜가 허망한 《북붕괴론》개꿈을 꾸면서 그 무슨 《대박》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얼마나 가판인가.

더우기 민심과 민족의 저주의 대상으로 되여 제명을 다 산 극악한 살인마집단, 반역의 무리들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는것은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희비극이다.

박근혜패당은 통일을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또한 동족의 머리우에 핵재앙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이다.

박근혜패당은 《통일대박론》의 막뒤에서 대결과 전쟁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박근혜는 《한반도통일시대준비》니, 《튼튼한 안보태세》니, 《한미동맹강화》니 뭐니 하면서 정초부터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에 미쳐돌아갔다.

괴뢰호전광들은 2월말부터 수개월동안 이나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맥스 썬더》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륙지와 바다, 공중에서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는가 하면 도발은 저들이 저지르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무턱대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걸고들며 《보복》과 《응징》을 운운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박근혜는 특히 온 남조선땅이 려객선침몰사고로 아수라장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피수 오바마를 끌어들여 반공화국핵소동을 벌려놓다못해 《전시작전권》전환재연기를 애걸하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각본인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과 《맞춤형억제전략》실현을 위한 공모결탁을 일층 강화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 더 많은 미국핵무기들이 쓸어들어와 북침핵전쟁책동이 한층 위험하게 벌어졌으며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광란이 최절정에 달하였다.

박근혜는 오바마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남보기 무참할 정도로 동족을 악랄하게 쏠아대고있다.

괴뢰패당은 우리가 미싸일시험 한번 해도 숨이 넘어갈듯 소란을 피우면서 미국에 대고 북을 어째달라고 애걸복걸하는가 하면 우리의 4차 핵시험예고에 대해서는 당장 지구가 깨져나가는것처럼 비명을 올리면서 상전의 품에 더 깊숙이 기여들며 《강력한 응징》과 《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를 줴쳐댔다.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이니 뭐니 하며 가장 피대를 돋구어 시비중상한것도 박근혜이며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가장 악랄하게 반대해나선것도 괴뢰패당이며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고아대며 인간쓰레기들을 《증인》으로 섬겨대고 유엔《북인권사무소》까지 끌어들이려 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의 돌격대, 하수인으로 가장 악질적으로 발벗고 나서고있는것도 바로 박근혜역적패당이다.

이 모든것은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대박》이란 뒤집어놓은 《전쟁대박》이며 미국의 힘을 빌어 기어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흉심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대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가져올 결과는 필연코 전쟁참화밖에 없다.

전쟁으로 남조선이 페허로 되고 기업이 재가루로 되여 사람까지 다 죽은 다음 거기에 무슨 《대박》이 있고 《횡재》가 있을수 있겠는가.

이러한 비참한 전쟁도 박근혜에게는 《대박》이 되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는 저들이 제창하는 《통일대박론》이 내외의 비난조소와 배격을 받자 미국상전의 인정이라도 받아보려고 오바마의 서울행각때 별의별 갖은 추태를 다 부리였다.

그리고는 상전이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감지덕지하여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그 얼음장같은 상통에 어울리지 않게 역겨운 수다를 떨었다.

실로 박근혜와 같은 추악한 매국노, 친미악녀는 이 세상에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가 떠드는 《통일대박론》이 저들의 불순한 정체를 가리우고 여론을 기만하여 반통일대결광란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기 위한 극악무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궤변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나라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흉악무도한 《체제대결론》, 《체제통일론》이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 《핵재앙론》이다.

집권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 실적도 없어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뚱딴지같이 《통일대박론》이란것을 내걸고 그 무슨 《효과》를 거두어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것은 온 겨레를 비롯한 내외의 더 큰 규탄과 망신밖에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박근혜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세월》호가 침몰하듯 박근혜《정권》의 침몰과 박근혜의 심판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박근혜는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가 《통일항아리》요 뭐요 하며 신성한 통일문제를 모독하다가 민족의 규탄을 받고 수치스러운 운명에 처하였듯이 박근혜 역시 《통일대박》이요 뭐요 하는 도박놀음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결국 그보다 더 처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박근혜는 도이췰란드의 《라인강반의 기적》을 본따 《한강반의 기적》이요 뭐요 하면서 반통일대결과 북침책동에 미쳐날뛰다가 비명횡사한 애비 박정희의 비극적인 종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죄적인 《통일대박론》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으로 반드시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론평원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 높이 받들어

자강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완성해나가는데서 혁명학원졸업생들,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지난 3월 9일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의 긴급협의회가 진행되였다. 협의회에서는 이제 곧 강계시에 들어서게 될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참가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날 협의회참가자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답사행군 전기간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줄 결의들을 다지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답사행군대원들이 강계시에 들어설 때에는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었다. 강계시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도 거리에 달려나와 답사행군대원들을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원아들을 위하는 도와 시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은 혁명의 천리길 강계답사숙영소에서도 감동깊게 펼쳐졌다.

도의 일군들과 답사숙영소의 종업원들은 원아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한가지라도 식탁우에 더 올려놓기 위해 왼심을 썼으며 생일을 맞는 원아들을 위해서는 생일상도 성의껏 차려주었다.

그날 도와 시의 일군들은 답사숙영소를 찾아와 원아들 모두가 부모들의 뜻을 이어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드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이 강계시에 머무르는 기간 강계닭내포국집과 장자강인민유원지, 강계청년공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원아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다 바쳤다. 어찌 이들뿐이랴.

희천시당위원회, 전천군당위원회, 송원군당위원회들에서도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답사행군에 참가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었다.

송원군에서 살고있는 허득란녀성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들이 답사행군길에 오른 원아들에게 시원한 샘물도 떠다주며 친부모의 정을 기울여주었다. 성간군도로보수관리대 구봉령가족소대 김성녀녀성은 답사행군대원들에게 가정에서 준비한 오미자, 찔광이단물도 안겨주고 그들과 함께 구봉령정점에 올라 비에 새겨진 헌시도 읊어주며 높고 험한 구봉령길에 어려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었다.

자강땅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긴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은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특파기자 동세웅

한식솔이 되여

신원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일군인 안흥모동무와 인민보안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10년전 봄 어느날 퇴근길에 오른 안흥모동무는 몇발자국앞에서 세바퀴차를 탄 한 영예군인이 안해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앞가슴에 빛나는 영예군인메달을 보는 안흥모동무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당에서 그토록 아끼는 영예군인이 아닌가.)

그는 영예군인과 그의 안해의 이야기에 방해될가싶어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의 소개를 하고나서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방바닥도 짚어보고 부엌세간도 일일이 헤아려보면서…

그리고는 올 때처럼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튿날이였다. 뜻밖에도 여러명의 인민보안원들이 영예군인의 집에 들어섰다. 그들은 안흥모동무를 비롯한 신원군인민보안서 아래단위 인민보안원들이였다.

그날 인민보안원들은 영예군인의 집안을 환하게 꾸려주었다. 도배도 다시 하고 장판도 깨끗이 해주었으며 집짐승우리도 손질해주었다.

다음날에는 영예군인의 집안살림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들을 들고왔고 그 이튿날에는 쌍둥이를 위해 마련한 새옷이며 영예군인의 건강회복에 필요한 약재와 별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들의 모습에서 영예군인 리순길동무는 뜨거운 혈육의 정을 느끼였다.

몇해가 지난 어느날 영예군인집은 읍에 있었다.

낯모를 인민보안원이 뒤따라들어서는 모습을 본 영예군인의 안해는 한동안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에게 안흥모동무는 친절하게 자기이 료양소로 떠날 때였다. 인민보안원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떨쳐나 영예군인이 료양치료를 잘하고 돌아오도록 준비를 갖추어주었고 마을동구밖까지 나가 그들부부를 바래주었다.

《그동안 쌍둥이는 우리가 잘 돌봐주겠소.》

그러는 안흥모동무의 모습을 보며 영예군인과 그의 안해는 흔연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언제나 큰아버지, 친삼촌이 되여 쌍둥이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준 인민보안원들의 모습이 되새겨졌기때문이였다.

해마다 생일날이면 꼭꼭 새옷을 마련하여 쌍둥이에게 안겨준 사람들도 인민보안원들이였고 첫물과일이 생기면 영예군인의 가정에 먼저 보내준 사람들도 그들이였다. 10년동안 변함없이 영예군인과 그의 가정을 위해 바쳐온 인민보안원들의 진정은 이렇듯 뜨거웠다.…

한생을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서려던 영예군인의 마음속소원을 안고 그의 쌍둥이자식들은 얼마전에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갔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한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이끌어준 인민보안원들의 모습에서 영예군인과 한식솔이 되여 사랑과 정을 바쳐가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없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어머니의 아침시간

룡성구역 룡궁1동 76인민반 장명신녀성의 생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깁니다.》

아직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새벽이다.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며 마당에 들어서는 녀성이 있다. 룡성구역 룡궁1동에서 살고있는 장명신녀성이다. 룡성구역도로강하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인 그는 벌써 자기가 맡은 도로를 관리하고 집에 들어서는 참이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동켠하늘을 바라보며 장명신녀성은 마당에 있는 빨래줄로 다가간다. 그리고는 밤새 마른 옷들을 포갠다. 옷끄트머리마다에 애들의 이름이 써있다. 선철, 군철, 류정…

그러다가 그는 문득 련정이라는 이름이 씌여진 옷을 펼쳐본다.

(요전에 련정이의 팔소매가 퍽 올라왔댔는데…)

그는 살며시 집안에 들어가 수첩을 들고나와 거기에 《련정이의 옷!》하고 적어놓는다. 말하자면 놓치지 말아야 할 하루일감을 수첩에 그때그때 적어두는것이다.

닭이 홰를 치자 장명신녀성은 급히 앞치마를 두른다. 김이 문문 오르는 가마속에 쌀을 안치고난 그는 큰 그릇을 들고 김치움이 있는 밖으로 나간다. 뒤이어 집안에 들어와 한켠에 줄지어있는 아이들의 책가방을 열고 학습준비에 빈틈이 없는가 살핀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들을 닦고났을 때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린애들에게는 일일이 세수물을 떠주고 이닦는 모습도 보아주며 잔소리를 해가던 그가 말한다.

《얘들아, 어서 밥을 먹자. 오늘 아침엔 콩나물국이란다.》

밥상을 펴놓고 빙 둘러앉은 아이들을 에돌아 국그릇을 손에 든 장명신녀성이 한 아이앞에 다가가 앉는다.

《광훈인 이 감자국을 먹어라.》

콩나물국을 싫어하는 그에게 장명신녀성은 특별히 감자국을 따로 끓여주었다.…

자식들은 학교로, 일터로 나간다. 그제서야 장명신녀성이 두사람의 식사가 차려져있는 밥상에 나앉는다.

《여보, 함께 하기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끄당기는 사람은 장명신녀성의 남편 박태호동무이다.

10여년동안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면서 기쁨도 힘겨움도 함께 나눈 미더운 남편이다. 손이 모자랄 때에는 함께 아이들의 옷도 빨고 자식들의 학습방조를 위해 며칠밤을 새우기도 하며 앓는 애들을 위해 하루밤에도 몇번씩 먼길을 걷는 남편의 모습은 장명신녀성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군 하였다.…

《점심에 혹시 제가 늦으면 가마안에 있는 밥을 애들에게 차려주세요. 련정이옷때문에 상점에 들려오겠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 물초롱이 들려져있다. 자기가 맡은 도로구간에 심은 꽃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이다. 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그의 아침시간은 이렇게 바쁘다. 아니 온 하루가 바쁘고 온 한해가 바쁘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오만공수가 든다는데 그 품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자식위해 바치는 어머니의 헌신은 대가를 모르는것이다.

장명신녀성의 아침시간, 이것은 이 땅 그 어디서나 미덕의 꽃을 피워가는 어머니들의 헌신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생활의 한토막,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이 땅에 흐르는 뜨거운 날과 달의 한순간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도안의 시, 군들을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 있다. —평안북도도시설계연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현대적인 도서관을 건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과 기술혁명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룡강군에서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도서관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3층으로 된 도서관은 일반도서에 의한 봉사는 물론 콤퓨터학습, 전자도서열람, 다매체편집물열람도 할수 있게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었다.

도서관에서는 새로 개설된 《룡강》홈페지를 통하여 인민대학습당의 전자도서들도 임의의 시간에 열람할수 있고 원격강의도 받을수 있게 되여있어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남포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룡강군의 일군들은 도서관을 먼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헤고나가면서 기초공사와 축조공사, 지붕공사를 한달사이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이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애국심을 안고 건물내부를 흠잡을데 없이 꾸리고 앞마당에 판석을 정교하게 깔아놓았다. 군의 일군들은 겨울철에도 도서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현대적인 난방설비를 설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특히 군에서는 최신식콤퓨터, 봉사기를 비롯한 설비들과 비품들을 훌륭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면서 자료기지구축, 케블선늘이기작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도서관일군들과 종업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도서관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섰다.

도서관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과시하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주창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우시군에서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우시군 체육부문 일군들이 군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체육에 힘을 넣어 누구나 다 체육을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량정사업소, 세멘트공장, 장공장, 철제일용품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 배구장, 롱구장, 탁구장들이 꾸려지고 종업원들모두가 하루일이 끝나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하창, 가중, 읍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농업부문에서도 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군의 체육부문 일군들은 휴식일과 명절을 계기로 군급기관, 학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별로 배구, 축구, 롱구, 탁구, 건강태권도를 비롯한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온 군이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체육부문 일군들은 매월 체육사업정형을 실속있게 총화지으면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그 과정에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군대항체육경기때마다 군은 바줄당기기, 롱구, 씨름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특히 해마다 진행되는 대황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에 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선수로 참가하고있는것은 자랑으로 되고있다.

특파기자

뉴질랜드총독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제리 마테파라이 뉴질랜드총독에게 리정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리 마테파라이총독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총독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최근 조선이 경제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인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는 반제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막는것은 자주위업승리의 담보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들이밀기 위해 항상 틈을 노린다. 그들이 찾는 틈이 바로 무규률, 무질서이다.

미국을 비롯한 반동세력이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에서 국가의 법질서와 제도를 바로세우고 규률을 강화하는데 대해 《인권유린》이니, 《자유에 대한 구속》이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있는것도 결국은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들이밀수 있는 틈을 넓히기 위해서이다.

규률은 제도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해놓은 규범이며 질서는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해놓은 차례나 절차 또는 행동방식이다.

어떤 크지 않은 사회단체가 유지되자고 하여도 그렇고 공장, 기업소 지어 국가라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을 관리운영하자고 해도 규률과 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규률과 질서가 없이는 사회적집단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수 없고 생산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옳은 방향에서 진행될수 없다.

규률과 질서가 똑바로 세워진 곳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언제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생겨난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특성과 통일단결된 면모는 규률과 질서가 잘 째여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다.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앞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이 계속 제기된다. 그럴수록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현시기 엄중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나라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규률과 질서를 약화시키거나 바로세우지 못하면 반사회주의적, 자본주의적요소들이 끊임없이 침투해들어와 퍼져나가면서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몰아오게 된다.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없는 곳에서 제일먼저 머리를 쳐드는것은 자유주의와 같은 잡사상, 잡귀신들이다.

참다운 자유와 자유주의는 사상적근원과 내용에서 완전히 구별되는것이다. 참다운 자유가 인간의 자주적본성에 기초한것이라면 자유주의는 낡은 사회의 산물인 개인리기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그릇된 사상적견해이다.

자유주의에 물젖게 되면 혁명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며 건달풍이 생겨난다. 이런 사상적견해에 쉽게 발붙이는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반동사상문화이다.

원래 자유주의 그자체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사상으로 되고있다. 부르죠아사상문화는 계급으로 형성된 자본가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만들어내고 여기에 멸망에 직면하여 날로 부패타락해지는 그들의 너절한 욕망과 그를 반영한 잡다한 사조들이 반죽되여 어지러워지고 반동화된 썩고 병든 사상문화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람들은 《개성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제 하고싶은 짓을 다하고있다. 돈이 없으면 도적과 강탈에 나서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총으로 친구나 스승도 서슴없이 쏘아죽이며 각종 정신적압박에 시달리면 마약도 거리낌없이 쓴다. 그 자유아닌 《자유》속에서 인간증오, 인종배타주의사상이 사회를 휩쓸고 착취와 압박이 제도화되였으며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극심해지고있다.

자유주의야말로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뿌리를 박고 자랄수 있는 터밭으로, 온상으로 된다. 그 터밭에서는 별의별 사조들이 잡풀처럼 무성하게 돋아난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고유한 민족풍습, 사회주의생활양식은 줴버리고 미국식, 서방식대로 살아나가려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난다.

무규률, 무질서가 성행하는 곳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적대분자들, 반혁명세력이 반드시 생겨난다.

제국주의자들의 내부와해전략은 사회주의나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서 적대분자들을 사촉하고 비호하며 적극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색갈혁명》도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함께 적대분자들, 반혁명세력에 대한 물질적 및 군사적지원을 통해서 일어난다.

최근년간 여러 나라들에서 비법적인 정권교체현상이 벌어지고 사회가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적대분자들, 반혁명세력에 입김을 불어넣어주면서 추동질하였기때문이다.

적대분자들은 사람들의 경각성이 해이되고 규률과 질서가 째이지 못한 틈을 항상 노린다. 그들은 규률과 질서가 없는 곳에 숨어들어와 각종 정탐활동, 파괴암해책동을 벌리고 미신 등을 류포시키면서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그속에서 반혁명단체를 결성한다.

이러한 적대분자들, 반혁명세력에 쉽게 동조하는것이 온갖 잡사상에 물젖은 자들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보아도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오염된자들은 례외없이 사회주의배신자, 혁명의 변절자,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졌다.

지난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망하게 된것도 무규률, 무질서를 허용한데 그 요인의 하나가 있다. 국가와 당의 주요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자본주의에 환상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자유》를 웨쳐댔다. 그로 하여 사회에는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였다. 사회주의제도를 비난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는자들이 늘어났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던 계급적원쑤들은 살 때를 만난것처럼 제세상을 찾겠다고 날뛰였다.

나중에는 국가의 법과 질서, 규정, 규범들에 망탕 손을 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오가잡탕의 정당, 단체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사이에는 정권쟁탈을 위한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경제는 뒤죽박죽이 되였다.

그를 보면서 박수를 치며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이였다.

사상문화분야에서 무규률, 무질서가 조성되고 사상일군들이 잠자게 되면 온 사회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오염되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수많은 나라들에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악랄하게 부르짖는것은 사상문화분야에서 무질서를 조성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의 총포소리를 울리기 전에 공보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대상국에 쳐들어가면서 공보수단들을 선참으로 장악하는것은 그만큼 사상선전수단들이 중요하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곳곳에 방송망, 인터네트를 구축해놓고 각 나라 말로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사상문화분야가 제구실을 못하면 자기 국가, 자기 당의 사상과 정책을 제때에 해설선전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제국주의와의 사상전에서 패하게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울 때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은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가장 우월한 사상과 사회제도도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수립될 때 그 우월성과 위력이 발휘된다.

리 경 수

방사제설기로 눈을 날려보내듯이

◇ 10년전에 미국잡지 《뉴스위크》가 이런 내용의 글을 실은적이 있다.

《랭전시대 철의 장막밖에 있던 젊은이들이 서방의 선전용라지오방송프로를 통해 미국의 음악을 듣고있다. 최근 …젊은이들이 시청이 금지된 미국의 록화물과 TV방송을 보는데 여념이 없다. 이와 같은 〈유연한 힘〉을 외교정책에 활용할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이루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매력〉으로 상대방을 녹여내는것이 위협공갈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보다 〈일〉을 쉽게 추진시킬수 있다.》

자료가 보여주다싶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끊임없이 들이미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으로 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의 첫번째 과녁으로 정해져있다. 솔금솔금 들어오는 부르죠아사상문화에 오염되여 타락한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은 반당, 반혁명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쓸개빠진 사상적변절자, 혁명의 배신자들을 그 무슨 인간으로 내세워주면서 침략의 앞잡이로 리용해먹고있다.

◇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지 못하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망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사이에 벌어지는 첨예한 대결전에서의 승패는 사상정신분야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미싸일 한기로는 한개 사단을 소멸할수 없지만 미싸일 한기값에 해당한 돈으로는 한개 사단을 녹여낼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오늘날에 와서 제국주의사상문화는 침략의 길잡이노릇을 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20세기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반동세력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지 못하여 끝내 붕괴되고말았다. 그 이후 어느 한 동유럽나라의 한 농촌교원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썩어빠진 반동적사상문화를 들이밀어 사회주의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떠벌인 덜레스의 각본대로 살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곧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신세로 되였다.》고 머저리짓을 한 자신들을 끝없이 저주하였다.

◇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타승하자면 비행장에 눈이 내릴 때 방사제설기로 활주로에 눈이 쌓이지 못하게 날려보내는것처럼 온갖 잡사상들을 깨끗이 날려보내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강대한 력량으로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순간도 쉬지 않고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벌리고있다. 때문에 이에 공세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사상문화적대결전에서 절대로 승리할수 없다.

활주로에 쌓이는 눈을 제때에 날려보내지 못하면 엄중한 비행기사고가 난다. 그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사상문화를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공세를 줄기차게 벌리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망쳐먹게 된다.

우리는 당의 목소리가 잠시도 중단없이 울리게 하고 사상투쟁을 계속 고조시켜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우리 내부에 발붙일수 없게 사상공세를 멈춤없이 강도높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다.

불굴의 정신력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며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세계는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진보적인류는 말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지닌 높은 정신력의 원천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자랑찬 길을 걸어왔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불러일으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조선로동당의 경험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예멘총인민대회대표단 단장)

《조선은 〈개혁〉과 〈개방〉의 반혁명적사상을 불사르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조선인민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인 자력갱생은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를 짓부시고 강성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준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세계화〉와 〈원조〉를 대가로 착취를 일삼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로 된다.》(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의 공동성명)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불굴의 정신력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과감하게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조선인민의 진두에는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뛰르끼예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3대혁명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주체사상이 얼마나 정당하며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설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강화하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은 조선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난관을 박차고 더욱 부강번영할 래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인도네시아정부문화대표단 단장)

본사기자

반제자주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오늘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책동의 반동성, 위험성을 깨달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그 침습을 막고 자기의 고유한 민족유산,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건전한 정신을 병들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썩어빠진 제국주의반동문화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폭로단죄하고 그 침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지난 세기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붕괴된 주요원인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사상문화침투를 가볍게 대하면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데 있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을수 있다.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민족자주의식을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나라의 모든 TV방송망들에서 외국방송프로를 줄이고 자기 나라의것을 장려하는 등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있다.

싱가포르정부는 색정적인 내용을 실은 출판물들의 배포를 금지시키고 폭력영화들의 상영을 중지시켰으며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통제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라오스에서는 비법적인 록화물, 록음자료들을 회수처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음상제품판매소들을 검열하고 민족적풍습에 맞지 않고 청소년들의 교육교양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는 수천개의 색정적인 록화물을 압수하여 소각하였다. 라오스공보 및 문화성이 이미전에 발표한 《각종 도서, 신문, 인쇄물의 라오스반입과 배포에 관한 공시문》에 의하면 모든 외국출판물의 반입, 배포는 해당 기관의 승인하에서만 진행될수 있으며 이 질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적제재를 받게 되여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비법적인 복사물, 색정적인 록화테프제작소들과 판매소들에 대한 검열사업을 진행하여 수십만개의 비법적인 음상제품들과 수천개의 색정적인 록화테프들을 압수하였다. 필리핀에서도 압수한 수많은 각종 디스크를 파괴하는 의식을 진행하였으며 불건전한 음상제품들을 회수하는 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벌리였다.

아랍나라들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처하여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며 최신통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아랍의 문화와 이슬람교도들을 반대하는 서방의 선전공세에 맞서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한 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시기 동유럽나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던 수법그대로 자기의 라지오방송들을 통하여 반이란음모를 성사시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인민들 특히 미래의 주인들인 청년들이 이에 경각성을 높이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할것을 호소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자기의 고유한 민족유산,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은 민족성을 말살하고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성과 자주의식을 고수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현 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

오늘은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이다.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앙리 듀낭이 출생한 날인 5월 8일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고있다.

력사를 더듬어보면 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발단은 전쟁과 잇닿아있다.

1859년 6월 이딸리아의 북부에서 프랑스황제 나뽈레옹 3세가 인솔하는 군대와 오스트리아군간에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로 수만명의 부상자들이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채 황량한 들판에 쓰러져있었다.

절망에 찬 한탄소리, 구원을 요청하는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퍼지는 이 참상을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목격하게 되였다.

그가 바로 국제적십자의 창설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스위스의 사회활동가 앙리 듀낭이였다.

피흘리며 죽어가는 부상자들을 불쌍하게 여긴 그는 주변마을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부상자들에 대한 자원적인 구호활동을 벌리였다.

듀낭은 조국에 돌아가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전쟁지역의 참상에 대한 글을 써내기도 하면서 부상병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구제기구를 내올것을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1863년에 오늘날 적십자국제위원회로 불리우는 《부상자들을 위한 국제구제위원회》가 창립되였으며 이로써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후 적십자운동앞에는 전쟁피해자뿐아니라 자연재난민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전쟁피해자들에게 보호와 방조를 제공하는 적십자국제위원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평화시기 재난민들을 구제하는 국제적조직을 따로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1919년 5월 5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26개 나라 적십자사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적십자사련맹이 창설되였으며 1991년 11월 27일 제8차 총회에서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으로 개칭되였다.

오늘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수많은 나라들에 조직된 적십자 및 적반월회단체들과 적십자국제기구들인 적십자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련맹을 거점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자성, 자원적봉사, 단일성, 보편성을 자기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다.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은 자기의 인도주의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전쟁과 각종 무장충돌,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삼고 국제적 및 지역적협조와 련대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우리 나라 적십자회는 1956년 5월 11일에 이 련맹에 가입하였다.

올해에도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을 맞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에서는 다채로운 활동과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당뇨병을 예방하는 요구르트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요구르트가 당뇨병을 예방하는데서 효과가 가장 크다는것을 밝혀냈다.

그들이 11년간 4 255명의 식생활습관을 추적연구한데 의하면 요구르트와 치즈를 비롯한 저지방발효젖제품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24% 낮아진다고 한다.

특히 요구르트를 매주 500ml정도 먹으면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8% 낮아진다.

연구사들은 요구르트를 비롯하여 저지방발효젖제품에 풍부히 들어있는 비타민K와 몸에 좋은 균들이 당뇨병예방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있다.

항의시위와 집회

도이췰란드의 전국각지에서 최근 항의시위와 집회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와 집회들에는 40만명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를 표시하고 임금을 올려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대통령 력사외곡행위를 반대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제4차 국제력사문화연단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한 력사외곡행위를 허용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한 진실을 고수하며 력사를 수정하려는 시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것은 공동의 의무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란에서

반항공체계성능시험 진행

이란이 4일 자체로 만든 반항공체계에 대한 성능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메르사드》로 불리우는 이 체계는 중고도반항공미싸일체계로서 각이한 류형의 현대적인 전투기 및 무인기들을 요격할수 있다.

카람 알 안비안반항공기지에서 진행된 시험에서 이 체계미싸일이 무인기를 명중하였다.

기지사령관은 《메르사드》반항공체계가 외국의 체계들에 비해 목표요격 및 전자전능력이 훨씬 우월하며 체계의 레이다도 보다 넓고 먼 지역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핵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립장 표명

이란원자력위원회 대변인이 3일 핵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란은 핵에네르기를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특히 정부가 아라크시에 있는 중수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사훈련 진행

이란의 수도에서 1일 이란동원군 녀성대원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되였다.

23개의 녀성신속반응대대가 참가한 이번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에 구조작전을 벌릴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데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4일 포괄적인 쌍무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중국 리극강국무원총리의 에티오피아방문과정에 이룩되였다.

이보다 앞서 2일 캄보쟈와 몽골은 쌍무협조관계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수립할데 관한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에 항의하는 팔레스티나인들

과거청산문제를 둘러싼 중일사이의 마찰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그것은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해결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엿보이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일립장이 강경해지고있다.

지난 4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서는 자기 웨브싸이트를 통하여 일본에 강제련행되였던 중국인로동자명단을 국제보도계에 발표하였다. 그 인원수는 3만 4 282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중일전쟁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련행되였던 피해자와 유가족 700명이 산동성 제남시에 있는 고급인민법원에 과거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하였다. 이 성에 있는 미쯔비시그룹의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총액 7억RMB. Y의 손해배상을 요구한것이다.

이보다 앞서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 149명이 하북성 석가장시에 있는 고급인민법원에 미쯔비시재료회사를 대상으로 총액 2억 2 700만RMB. Y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제출하였다.

중일전쟁시기 수많은 중국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적로동을 강요한 일본기업은 39개나 된다. 그중 20개이상의 기업이 현재 존재하고있다. 외신들은 강제련행피해자들이 중국의 각 재판소에 일본의 과거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보다 적극화될것이라고 전하고있다. 실지로 지난 3월에 베이징시재판소가 미쯔비시재료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장을 처음으로 접수한 후 과거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중국의 여러곳에서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일제가 저지른 치떨리는 과거죄행에 대한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중국의 강경한 립장을 보여주는 단적실례로 된다.

일본이 과거청산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일본은 응당 저들이 저지른 과거침략과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가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이 국제법상으로 보나, 도덕적측면에서 보나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고 의무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배상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리저리 발뺌을 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중일 두 나라간에 전후처리문제는 이미 《원만히 해결》되였다는 일본의 낡아빠진 판에 박힌 소리이다.

일본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시중에 강제련행된 이전 중국인로동자들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중국의 재판소가 접수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중사이의 전후처리틀거리나 경제관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일공동성명》체결후 두 나라사이에는 개인손해배상을 포함한 그 어떤 손해배상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배상의무를 회피해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로동자들을 강제징집하고 노예로 부려먹은것은 일본군국주의가 대외침략 및 식민지통치기간에 범한 엄중한 죄행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측은 력사가 남겨놓은 이 중대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것을 일본측에 요구하며 《중일공동성명》에 대한 일본측의 일방적이고 외곡된 해석을 반대한다고 단죄규탄하였다.

중일전쟁시기 중국인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적로동을 강요한것은 일제가 저지른 엄중한 범죄이다.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청산문제에서 성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앞으로도 세계민심의 심판대우에 오른 과거청산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흥정하려든다면 인류량심의 저주와 엄한 벌을 받게 될것이다.

김 수 진

ㄱ-41071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